

정치를 위한 건축

Architecture and Politics

박길룡 / 국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by Park Kil-Yong

한국의 정치를 잘 모르고 관심도 없지만, 그것이 얼마나 형편없는가는 요즘음 매스미디어를 통해 익히 듣고 있다.

얼마전 TV에 한국의 정치문화를 극명하게 나타내는 보도가 있었다. 그러려니 하였지만 그만한지는 몰랐다. 회기내 내 당파, 계파 간 정치이해의 알력으로 개회를 못하고, 간신히 회장이 열리면서 정족수가 되는지 모를 참석의원들이 그저 하품을 하거나 조는 모습, 전날의 숙취(宿醉)가 아직 덜 깬 모습, 아니면 전혀 집중하는 태도가 아니다. 회기 중에 골프치러 갔다가 T.V. 카메라에 들킨 의원은 그후 헨디를 얼마나 내렸는지 모르겠다. 국회의 정문은 나리들 전용이니 방문 국민은 뒷문으로 돌아가라는 수위의 제지는 우리나라 정치 양태를 보여주는 압권이었다.

한 시대의 건축문화는 그 시대 사회의 아주 구체적인 반영이라고 하였다. 우리가 1968년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설계 경기에서 당선작을 못내고 중구(衆口)가 모여 설계되는 과정을 보면서 당시 한국의 정치문화가 얼마나 고식적(姑息的)이고 고류(固陋)한 것인가를 알게 되었다. 배치는 궁궐처럼 하고, 건축은 19세기 양식을 호모하는 국회의사당의 조형만큼이나, 한국의 정치는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양태임이 잘 나타나고 있다. 주랑과 지붕이 나타내려는 과잉된 정치적 제스처, 돔의 형식과 공간적 내용의 괴리(乖離)가 쓸데없이 넓은 대지를 차지하고 있다.

청와대의 디자인은 또 어떠한가. 건조하기 마련인 대칭적 배치에 콘크리트 주심포 집에 최고 통치자의 국가주의 문화관이 배어 있다.

나는 이 청와대가 설계되는 과정을 보고 한국 최고 통치자의 문화적 퇴역성(退孳性)을 잘 알아보았다. 그 다음 김영삼 대통령 정부에 들어서 문화가 체육에 병합되어 문화체육부가 된다. 아닌게 아니라 국립중앙박물관이 느닷없이 헐려 나간다. 그래서 한국의 공공건축은 자주 프로파간다의 수단이 되어왔다고 보여진다.

한국의 문화주도력이 국가주의 문화에 근거한다는 사실은 잘 알려진 것이지만, 정치를 위한 건축의 디자인들이 하나 같이 그들 내용의 속성을 잘 나타낸다. 광화문의 종합정부청사(P. A & E, 미국 /1967-70) 건립 때에도 그러하였고, 과천의 정부청사(1974년 설계경기)들도 그러했다. 그것은 최근의 서울법원종합청사(서울 /1989 /공간건축)를 비롯한 헌법재판소(서울 /1993 /현신건축) 등의 사법부 건축에서도 그러하다.

나는 독일 본의 의사당(Plenarkereich des Deutschen) 신축 현장을 보러 간 적이 있다. 그 의사당은 동·서 독일의 통일과 함께 국회의 구조가 바뀌고, 수도가 본에서 베를린으로 옮겨가야 하느니 하여서 개회도 못하고 용도 변경하여야 할 운명이었다. 여하튼 거기에서 한국 정치행태에 젖어 있는 나에게는 희한하게 들리는 건축가 Gnter Benisch의 개념을 들었다.

의사당은 전모 뿐만이 아니라 회의장의 사방벽이 모두 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다. 회의장 실내에서 사방은 녹음과 하늘과 바람이 풍경을 이룬다. 이 적극적인 투명성을 보고 나는 의원들이 회의에 집중력을 잃을 것이라고 염려하였다. 그러나 설명은 이러한 개방감 가운데에서 회의를 하면 의원들이 좀더 타협적으로 되고 부드러운 심성으로 회의를 운영할 것이라는 것이다.

하와이 호놀룰루의 주정부 청사는 가운데가 로툰다로 비어 있고, 그 지반층에 의회장이 배치되어 있다. 관광객이나 주민이건 이 가로에 개방되어 있는 로툰다에 나있는 회의장의 창문을 통해 의회 내부의 모습을 들여다 볼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러한 개방성이 곧 민주주의의 정신일 것이다. 여기에는 골프치러 자리를 비우는 의원이나 회의중 내리 졸고 있는 의원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보면 건축이 정치를 만들지는 못하여도 건축이 정치를 열게는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정치로부터 프로젝트를 의뢰받는 경우에는 해달라는 대로 따라하지 말자.

왜냐하면 우리의 공공건축은 국민이 만들어서 정치에게 임기동안 쓰라고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공공건축의 사용자와 소유주와 주체가 어디인지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요즈음 몇 개의 지방자치 청사와 동회(洞會)건축이 설계경기를 거치면서 그의 조형성이 크게 진보하는 것을 보았다. 미테랑의 빠리 그랑프로제 중의 경제·재정부(Le Minist re de L'Economie et des Finances /Borja Huidobro, Paul Chemetov /1982-88)와 같은 혁명은 기대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관료주의 문화의 일탈을 기대하게 한다. 일본 東京都 新廳舎(新宿 /건조단케단下建三 /1986-91)처럼 돈(錢)의 미학이 아니라도, 우리는 국민·시민 문화와 열린 정치를 위한 건축의 개념을 기대하게 한다.

우리가 현재로써 실천할 수 있는 일은 비록 작은 청사부터인지 모르지만 권위주의와 국가주의 문화로부터의 일탈로 보이는 변화의 현상은 고무적인 일이다. 건축이 정치를 순화시킬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 순진한 생각인지 모르지만 공공건축은 국가문화에 있어 보다 앞선 가치관에 있어야 한다.

우리는 서울시청사의 건립을 앞두고 있다. 프로그램과 대지를 만드는 의사결정이 순조롭지 못하여 걱정이지만 한국의 행정·정치를 위한 건축을 열게 할 모처럼의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만약 이 프로젝트가 설계경기로 이루어진다면 나는 일차적으로 보다 더 투명하고 개방적인 개념이 우승하리라 생각한다.